



유통업계 노조
규제완화
입장차
나



Life

제약·바이오
신약개발
시활용 넓힌다
L2



생산적금융 300조 투입... 산업체질 선도하는 '금융파트너'

2026 생산·포용·신뢰의 금융

IBK 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생산적 금융'을 전면에 내세운 2026년 경영전략을 본격 가동한다. 단순한 자금 공급자를 넘어 산업 체질을 선도하는 금융파트너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고금리 장기화, 내수 둔화가 맞물리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기업은행은 이러한 복합 위기를 단순한 경기 대응 차원이 아닌 산업 경쟁력 재편의 전환점으로 인식하고, 정책금융의 역할을 한 단계 확장할 방침이다.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은 취임사에서 "저성장과 산업 대전환의 복합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IBK가 단순한 자금 공급자를 넘어 산업 체질 개선을 선도하는 금융파트너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300조 승부수... 생산적 금융 드라이브
기업은행은 올해 생산적 금융을 전면에 내세우며 ▲신산업과 혁신기업 지원 ▲여성심사 체계 혁신 ▲지역산업 지원을 강조했다.

기업은행은 2030년까지 300조원을 투입하는 'IBK형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또 2026년부터 5년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첨단·혁신 산업 육성과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총 250조원 이상의 자금을 집중 공급한다. 이는 300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지방 중소기업 120조원 및 창업기업 100조원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을 강화하고, 기술력과 성장성을 반영하는 여성심사 체계로 자금공백을 최소화한다.

이밖에도 기업은행은 지역 균형발전과 포용적 공정금융 실현에도 힘쓴다. 5극3특 체제에 맞춘 지역산업 생태계 지원과 함께 7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재기를 돕는다.

IBK기업은행 '30-300 프로젝트'

중소기업·소상공인	벤처·투자·인프라	소비자중심·신뢰	자회사(IBK캐피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단·혁신산업 육성 창업·벤처기업성장지원 지방 중소기업 지원 강화 소상공인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단 전략산업 투자 지원 인프라금융 지원 K-컬처·콘텐츠 육성 정책펀드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용금융 강화 내부통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문별 시너지 협력 중기·소상공인 지원 모험자본 공급 확대 소비자 중심 포용금융, 신뢰제고 추진
250조원	20조원	3.3조원	34.5조원

자료/IBK기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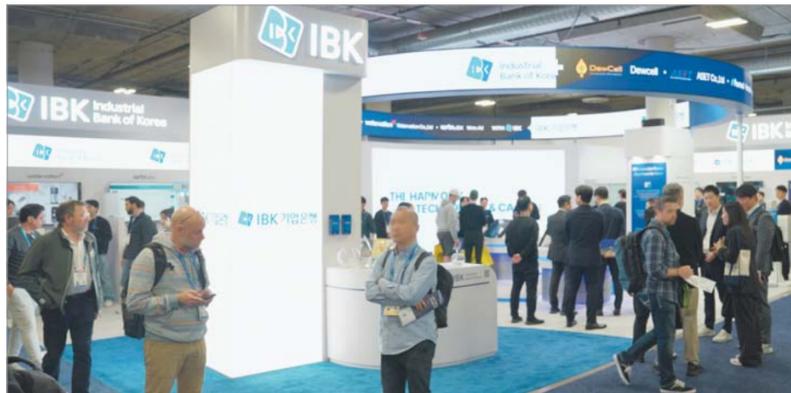
장민영
IBK기업은행장

300조 규모 '생산적 금융' 본격 가동
신산업·혁신기업, 지역산업 등 지원

5년간 中企·소상공인 첨단산업 육성
5극3특체제 맞춰 지역 균형발전 앞장

주계열사 투입 '국민성장펀드 추진단'
기업 성장단계 맞춰 금융효과 극대화
대출이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

조직체계 손질, 여신 심사조직 개편
내부통제, 보안 강화... 리스크 관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6'에서 관람객들이 IBK혁신관을 둘러보고 있다. /IBK기업은행

5극3특체제는 수도권 1극 집중 현상을 극복하고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여 지방 주도의 다극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정부의 핵심 국가 전략이다.

◆ TF 신설... 실행체계 구축

기업은행은 생산적 금융 계획을 성과로 이루기 위해 IBK금융그룹 차원의 전담 조직을 출범했다. 기업은행을 비롯해 ▲IBK캐피탈 ▲IBK투자증권 ▲IBK연금보험 ▲IBK자산운용 ▲IBK벤처투자 등 주요 계열사가 참여하는 'IBK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은행의 여신 기능과 증권·자산운용·벤처투자의 역량을 결합해 대출과 투

자, 펀드 조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 정책자금 대출, 지분 투자, 펀드 출자 등을 맞춤형으로 연결해 생산적 금융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단일 금융상품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대출-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그룹 차원의 자본과 노하우를 총동원해 정책금융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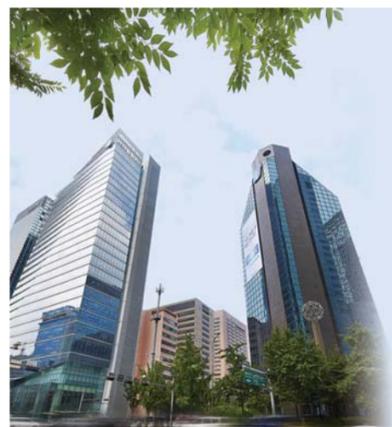
조직체계도 손질했다. 부행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IBK형 생산적 금융 데스크포스(TF)'를 신설해 생산적 금융을 추진한다.

여신 심사 조직도 개편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전문 부서 기능을 강화했다. 또 담보 위주의 심사에서 벗어나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여신심사체계를 고도화한다.

책무구조도에 따라 관리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정책 금융 추진 과정에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

장민영 행장은 "금융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경쟁력은 고객의 신뢰"라며 "철저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정보보안 체계를 강화해 보이지 않는 리스크까지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기업은행 기술신용대출 잔액

단위: 조원, 누적잔액 기준



생산적 금융 전략

- 현장경험 중심 부행장, 본부장 유관부서 재배치
- AI기반 산업별 특화 지표와 미래성장성 반영한 지원 심사
- IBK 계열사 역량은 'IBK 국민성장펀드 추진단' 운영
-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IBK 상생도약펀드' 마련
- 신규자금·금리완충 채무조정 등 유은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구성

자료/은행연합회, IBK기업은행

메트로 한줄뉴스



▲이정후·김혜성, WBC 대표팀 합류 앞두고 나란히 멀티히트 /사진 뉴스시스

▲오타니도 합류한다...완전체 가까워지는 WBC 일본 야구 대표팀

▲'한국 축구 전설' 차범근 "죽기 전에 월드컵 우승 한 번 봤으면"

▲'흥부 듀오' 계속...로스앤젤레스FC, 손흥민 파트너 부양가와 연장 계약

▲'사상 첫 외국인 감독' 마졸스호, 대만 상대로 농구 월드컵 예선 연습 도전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청년 예체능 인재 양성 본격